

시편 묵상 61
(12/28/2023, 목)

찬양: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성령님의 조명을 위한 기도: 다함께 말씀을 읽고 나누고 묵상할 때 주시는 성령님의 조명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말씀 읽기: 시 37:1-3

말씀에 대한 이해: 시 37 편은 다윗의 시로서 ‘지혜시’로 분류된다. 본 시편은 의인과 악인의 모습을 대조하면서 의인은 어떠한 사람들인지 그리고 그들의 인생의 결과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를 기술한다. 학자들에 따르면 시 37 편은 아마도 다윗이 노년에 자신이 다스리는 신정 왕국의 백성들을 교훈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쓴 것으로 본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의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다. 하나님은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의로운 성도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하신다.

말씀 속에 담아 주신 메시지: 1. 악인들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1-8 절). 시 37:1 -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불평하지 말며”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하라’라는 단어로써 문자적으로 ‘불타오르다’ 혹은 ‘불붙다’라는 뜻이다. “불평”의 원어적 의미는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은 분노를 의미한다.

다윗은 믿음의 백성들이 악한 자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에 불편함을 넘어 고통을 느끼고 그들로 인해 강한 분노를 표출하는 것으로서의 불평을 하는 것을 경계했다. 의인들이 악인들을 보며 불평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의 악함 자체 뿐만 아니라 그들의 형통한 모습 때문이다. 의인의 질문은 악인이 어찌하여 삶에서 부귀영화와 형통을 누릴 수 있는가이다. 악인의 형통을 눈으로 보는 의인은 내면에서 강한 분노가 올라올 수 있다. 실제로 우리는 나름대로 정의로롭게 살아간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는 반면 온갖 부정과 부패를 일삼고 악한 행위를 통해 남들에게 큰 피해를 준 사람들이 다양한 기득권을 누리고 부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악인의 형통으로 불평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묵상하고 실천해야 하는 메시지를 주신다. **1) 겉으로 보이는 악인들의 형통에 마음을 두지 말라. 시 37:2 -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베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 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풀”**은 ‘곧 사라질 것’, ‘덧없음’, ‘허무함’ 등을 의미한다. **“푸른 채소”**는 일정 기간 색깔도 푸르고 싱싱한 모습을 보이지만, 강한 햇빛을 받거나 새벽에 서리라도 맞게 되면 금세 시들어 버리고 마는 연약한 존재를 의미한다. **“풀”**과 **“푸른 채소”**는 눈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지만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연약한 존재들을 의미한다. 다윗은 악인의 형통을 **“풀”**과 **“푸른 채소”**에 비유하면서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마음에 불평과 질투를 가질 필요가 전혀 없음을 말했다.

“풀”과 **“푸른 채소”**의 비유는 악인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에 적용된다. 믿음의 사람은 이 땅의 것에 현혹되고 마음을 빼앗기며 집착해서는 안된다. 사람을 포함한 이 땅의 모든 것은 풀과 푸른 채소와 같이 금세 시들고 사라질 것이다. 우리는 언제나 위의 것, 하늘의 것에 마음을 두고 사모해야 한다.

더 나아가 눈에 보이는 육신적 번영이 모두 참된 성공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의인이 악인의 육신적 번영을 보고 분노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그들의 번영을 성공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의인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는 생각 한 가지는 악인의 번영과 형통을 진정한 성공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물질적인 부유함과 세속적 형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공의 부분적 결과로 주어질 수는 있다. 실제로 다윗과 솔로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최고의 물질적 번영을 누리게 하셨다.

그러나 우리가 잊어서는 안되는 것은 물질의 부유함과 세속적 번영이 모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공의 징표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많은 경우 그들의 부유함과 형통은 오히려 재앙의 징표일 수도 있다. 많은 이들이 가진 부와 권력을 가지고 남들보다 훨씬 큰 죄악을 저지르고 남들보다 훨씬 빨리 멸망의 길로 들어선다. 악한 자의 부귀영화는 어떤 의미에서 심판과 멸망의 불이 더 잘 붙게끔 하는,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이 부어진 기쁨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의 형통과 번영으로 인하여 불평할 이유가 없다.

가장 근본적으로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공의의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를 세우신다. 정의의 하나님은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성도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악인을 부러워할 이유도 없고, 그들의 성공을 질투하거나 분노를 가질 이유도 없다.

2) 성도는 악인의 행동을 보며 분노하지 말고 자신의 영적 본분을 지키면 된다. 그 본분은 무엇인가? (1)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며 땅에 머물며 성실로 식물로 삼으라. 시 37:3 -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의뢰하고”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빠타흐’는 ‘신뢰하다,’ ‘믿다’라는 뜻이다. 그런데 이 단어는 언제나 ‘~ 속으로’ 라는 뜻의 히브리어 전치사 ‘빠’를 취한다. 이것은 이 단어가 말하는 신뢰는 신뢰하는 대상 속으로 들어가 그와 연합을 이루는 개념임을 알게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상호내주의 관계를 이룬다고 가르친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요 1:12 -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 안에 거하시고 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셨다. **요 15:4 -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믿음의 사람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여 주님과 연합되어 살아갈 만큼 주님을 신뢰한다.

“**선을 행하라**”라고 번역된 표현에서 “**선**”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토브’는 도덕적 의미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종류의 아름답고 긍정적인 어떤 것을 나타내기도 하고 아울러 하나님의 선하심을 뜻하기도 한다. 본문은 그러한 “**선**”을 행하라고 말씀한다. “**행하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아사’는 건물을 만드는 것, 어떤 물건을 제조하는 것 혹은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라고 한다. 이런 의미에서 본문에서 말하는 선을 행하는 것은 좋고 유익하고 아름다운 어떤 것을 정성을 다해 만들어 내듯이 선을 꾸준히 이루어 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바울은 갈 6:9 에서,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않으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표준새번역)이라고 말씀했다. 선을 행하는 것, 특히 선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중요한 것은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꾸준한 노력과 정성으로 주님께서 만들기 원하시는 작품과 주님께서 맺기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땅에 머무는**”이라는 표현 속에는 ‘땅에 머물라’는 명령이 담겨 있다. “**땅**”은 하나님께서 인간 각자에게 주신 분복으로 볼 수 있다. “**땅에 머물라**”는 말씀은 과도한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분복을 잘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라는 표현은 한 마디로 성실하라는 것이다.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의 히브리어 문자적 의미는 ‘그리고 뜯어 먹어라’이다. 따라서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는다는 것은 매일 음식을 먹듯이 성실을 먹는 것, 다시 말해서 언제나 마음에 성실을 품고 계속해서 성실하게 일하라는 것이다.

믿음의 사람은 악인들로 인해 불평해서는 안된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 있기 때문이고, 눈에 보이는 행동이 모두 진정한 행동이 아니며, 겉으로 대단하게 보이는 것은 이내 시들고 사라지기 때문이다. 성도는 금세 사라지는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위의 것,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며 추구해야 한다. 이와 함께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본분을 다해야 한다. 그 본분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며 자신의 분복에 감사하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며 모든 일에 항상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길이며, 영적 승리의 길이다.

묵상하기: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은 무엇인가? 주신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함께 나눌 기도제목

1. 악인의 행동을 불평하지 않고 성도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삶으로 주의 복과 은혜를 입게 하시옵소서.

2.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후원하는 김영무(남아공화국), 박재덕(탄자니아), 박종국(에티오피아) 선교사님의 사역과 가정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복음과 구원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게 하시옵소서.
3. 최근 9-10 월 사이에 콜레라가 창궐하여 5,000 명이 감염되고 100 명이상이 사망했으며, 이와 함께 물 부족으로 인하여 위생 시스템에 큰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오폐수로 오염된 물에 의존하고 있는 짐바브웨를 비롯한 아프리카 내의 극빈 지역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문제가 해결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시옵소서(시 19:14).